

## 국회 통외통위 조찬 간담회

파병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결정하지는 않을 것

오늘 테이블 분위기를 보면 예전의 대통령 문화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적어도 제왕적 대통령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병문제와 관련하여 전후복구참여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적 이익을 추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미관계는 중요합니다. 또 세계 석유질서의 전망도 고려사항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경제적 전망에도 또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파병이 결정된 후 미국은 APEC에서 북핵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었습니다. 파병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신임 국면에서 지지자의 절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파병을 발표했습니다. 적어도 파병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존중할 것이며 방침이 결정되면 단호하게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FTA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자유무역의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한 발 늦으면 세계시장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칠레가 첫 번째 상대국으로서 적절했는가의 문제보다 이번 FTA는 세계시장 속에서 한국의 개혁,

개방의지를 시험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소신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결정해 주십시오. 국회 안에서 모두가 살 수 있는 대타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